

전남교육 발전 공헌 5명 제45회 전라남도교육상 수상

전남교육청, 시상식 갖고 전남교육 '명예의 전당' 헌액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45회 전라남도교육상 시상식'을 갖고 수상자로 선정된 5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전라남도교육상은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의 모범이 되고 전남교육 발전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매년 5명 이내에서 수여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재정화 목포수산초등학교 교장, 김승희 전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조병연 전 화순중학교 교장, 박현숙 신북초등학교 행정실장, 오경규 빛가람종합병원 병원장이다.

재정화 교장은 목포수산초등학교 공모교장으로 재직하며, 사람 중심 교육철학에 기반한 학생성장 지원, 지역·해양·자원을 활용한 특색교육으로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에 기여하고, 소규모 학교의 강점을 살린 맞춤형 교육 실현에 공헌했다.

김승희 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 교육

국장, 전라남도교육연구원장 재직 중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행정 기틀을 마련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 기초학력 증진, 교원 복지 향상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에 공헌했다.

조병연 교장은 중등교원 승진제출서류 자동화 프로그램 '딸깍발이'를 개발·보급하여 인사행정 혁신과 교원 업무 경감 시스템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딸깍발이는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동료와 후배들의 인사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박현숙 행정실장은 교육행정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교 운영 안정화에 기여했다.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조직의 소통과 직원의 권익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

오경규 병원장은 40년 이상 지역사회 보건 및 교육 발전에 헌신한 존경받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제45회 전라남도교육상' 수상자들이 1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학생·교직원·지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을 지속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 했다.

이들 수상자 5명은 전남교육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남도교육청 1층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오늘 수상자는 전남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빛낸 주역이자, 아이들의 미래를 비추줄 희망의 등불"이라며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벌 전남교육의 동반자로서 변함없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77호점 선정

맨투맨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에 총 2천만 원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1일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77호점 선정식을 갖고,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맨투맨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은행 임양진 경영지원본부장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점근 본부장이 참석해 지역 아동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광주은행은 지역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맨투맨지역아동센터에 총 2천만 원을 지원했다. 해당 센터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이 이용하고, 야간 10시까지 운영되는 돌봄시설로 이용률이 높아 시설 개선 요구가 컸다.

이번 개보수는 안전·위생·학습 환경을 전반적으로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내부 공간의 방음 벽지와 장판을

전면 교체해 화재 위험을 줄였고, 파손 위험이 있던 목문도 새로 설치했다. 또한 위생 개선을 위해 세면대를 새로 설치하고 화장실을 보수했으며, 학습용 기자재를 새로 구비해 아동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광주은행은 2015년부터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광주·전남 46개 지역아동센터의 개보수를 위해 총 4억2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광주은행 임양진 경영지원본부장은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장성군 동화면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

총 20가구에 주거 환경 개선, 생활안정자금 지원

장성군 동화면 복지기동대가 최근 성과 공유회를 열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기동대는 총 8가구를 방문해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실시했다. 12가구에는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달 29일에는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함께 홀몸 어르신, 장애인 세대 등을 방문해 연기 감지기,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지

원하기도 했다.

김인식 복지기동대장은 "대원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모아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한 한 해였다"며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감사 인사를 전한 이미경 동화면장은 "복지기동대와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을 한층 촘촘하고 세심하게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 장성/황현 기자



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시술
(보조생식술)
급여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광양경자청, 직원 역량 강화와 소통 증진을 위한 워크숍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중근, 이하 광양경자청)은 12월 12일 여수 소노 캠프 호텔에서 「2025년 GFEZ 직원 역량강

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광양경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직원 간 소통

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바른 자세 특강, 팀 빌딩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올바른 자세 특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개선 방안을 다뤘다. 오후에는 팀 빌딩 프로그램으로 단체활동을 통해 직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중근 광양경자청장은 "이번 워크숍은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조직 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나주시 반남면지사협,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50가구에 김장 김치 전달하며 안부 살피



전남 나주시 반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위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장 김치를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겨울철 취약계층 가구의 식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기동대, 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 김장 김치를 담그고 직접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함께 살폈다.

반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성진 위원장은 "이웃을 위해 한마음으로 김장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어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함평군 신광면 지사협, 취약계층에 겨울 맞춤 선물 '훈훈'

전남 함평군 신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가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

층을 위한 난방용품을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함평군은 12일 "신광면 지사협(공공위원장 심희숙, 민간위원장 장영식)가 지난 10일 취약계층 25가구에 탄소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본격적인 한파에 앞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방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지원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사협 위원들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탄소매트를 전달하고, 난방 상태와 생활 여건을 함께 살피며 주거 환경을 점검하는 등 세심한 복지활동도 병행했다. 함평/전광훈 기자